

회의문자①



晨

새벽 신

晨자는 '새벽'이나 '때'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晨자는 日(해 일)자와 辰(때 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辰자는 풀을 베는 도구를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晨자를 보면 艸(풀 초)자에 辰자가 결합해 𣎵 있거나 또는 양손에 辰자를 쥐고 있는 𣎵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이른 새벽에 낫으로 풀이나 벼를 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양손에 낫을 들고 있던 모습이 日자로 바뀌어 이것이 시간과 관련된 글자임을 뜻하게 되었다.

𣎵

갑골문

𣎵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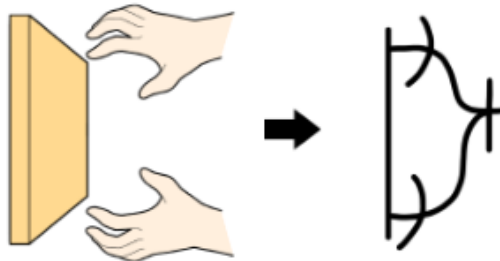
晨

소전

晨

해서

회의문자①



尋

찾을 심

尋자는 '찾다'나 '캐묻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尋자는 又(또 우)자와 工(장인 공)자, 口(입 구)자, 寸(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서는 단순히 양손을 뻗어 벽을 더듬는 𠂔 모습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일부 갑골문에서는 여기에 口자까지 더해져 있어서 손으로 더듬으며 소리를 내는 모습까지 표현되기도 했었다. 소전에서는 다양한 글자들이 결합하면서 지금의 尋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𠂔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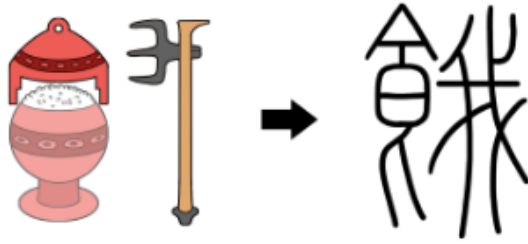
尋

소전

尋

해서

회의문자①



餓

주릴 아:

餓자는 '굶주리다'나 '굶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餓자는 食(밥 식)자와 我(나 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我자는 삼지창을 그린 것이지만 '나'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라는 뜻을 가진 我자에 食자가 결합한 餓자는 '(내가)몹시 굶주렸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굶주림과 관계된 글자에 食자가 쓰인 것이 다소 아이러니하지만, 먹는 것과 관계된 글자임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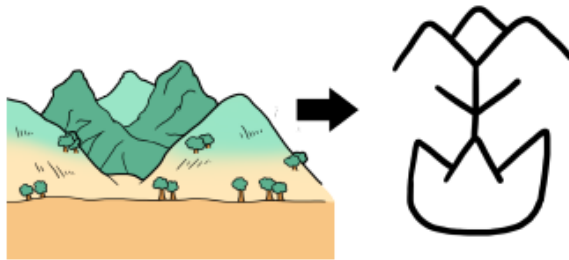
餓

소전

餓

해서

상형문자①



岳

큰산 악

岳자는 '큰 산'이나 '높은 산'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岳자는 山(뫼 산)자와 丘(언덕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岳자는 산 뒤에 丘 언덕을 그린 것으로 산세가 가파르고 높은 '큰 산'을 뜻하고 있다. 먼 옛날에는 제후가 하늘에 제를 지냈던 산을 岳이라 했다. 5개의 높은 산을 중심으로 제를 지냈다고 하여 이것을 오악(五岳)이라고 했는데, 岳자는 그런 높은 산들을 뜻하는 글자이다.

岳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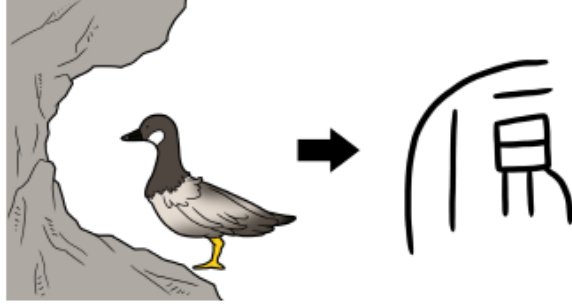
岳

소전

岳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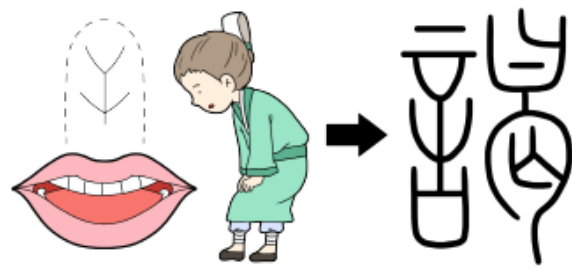
雁

기러기
안:

雁자는 '기러기'나 '먼 곳'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雁자는 厂(기슭 엄)자와 人(사람 인)자, 隹(새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사실 금문에서는 鳥(새 조)자가 들어간 鴈(기러기 안)자가 쓰였었고 雁자는 속자(俗字)였다. 금문에 나온 鴈자를 보면 기슭 옆으로 새 한 마리와 획이 鴈 그어져 있었다. 이 획이 후에 人자로 바뀌면서 지금의 雁자가 된 것이다. 기러기는 계절에 따라 먼 곳을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鴈자는 '기러기'라는 뜻 외에도 '먼 곳'이나 '정처 없이 떠돌다'라는 뜻이 파생되어 있다. 예전에는 鴈자와 雁자가 서로 혼용되었었지만, 지금은 주로 雁자가 쓰이고 있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謁

謁 알

謁자는 '뵈다'나 '아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謁자는 言(말씀 언)자와 謁(어찌 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謁자는 허리를 굽혀 구걸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아뢰다'라는 것은 신분이 높으신 분을 찾아뵈며 인사드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 謁자는 허리를 조아리는 모습의 謁자를 응용해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로 해석된다.

소전	해서

3
-
167

회의문자①



押

누를 압

押자는 '누르다'나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押자는 手(손 수)자와 甲(갑옷 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甲자는 고대 갑옷을 그린 것이다. 고대에 사용하던 갑옷은 철 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것이었다. 이러한 갑옷은 앞판과 뒤판을 걸치고 양옆의 끈을 팍 조이는 방식으로 입었다. 이렇게 쪼여 입는 갑옷을 그린 甲자에 手자를 결합한 押자는 갑옷을 손으로 팍 조여 입으면 압박된다는 의미에서 '압박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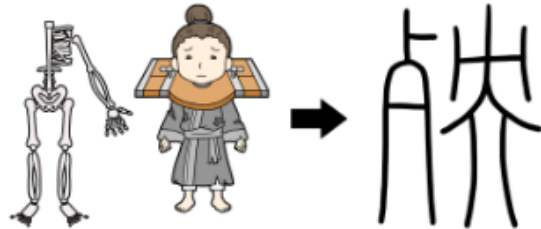
소전

押

해서

3
-
168

회의문자①



殃

재앙 앙

殃자는 '재앙'이나 '하늘의 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殃자는 殛(뼈 알)자와 央(가운데 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央자는 목에 가추(枷杻)를 차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목에 가추를 차고 있다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잡혀 온 죄수는 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랐다. 때로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죽어서 뼈만 남은 모습을 그린 殛자에 央자가 결합한 殃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재앙'을 뜻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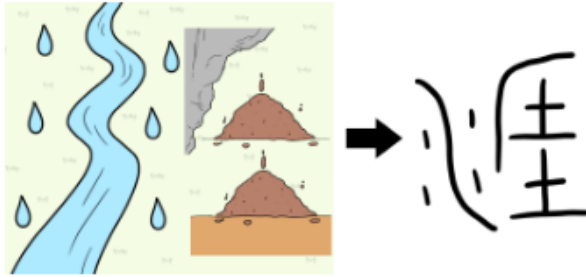
殃

소전

殃

해서

회의문자 ①



涯

물가 애

涯자는 '물가'나 '끝', '한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涯자는 水(물 수)자와 厓(언덕 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厓자는 강기슭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그린 것으로 '언덕'이나 '물가', '끝'이라는 뜻이 있다.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涯자는 본래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 글자이다. 다만 涯자는 우리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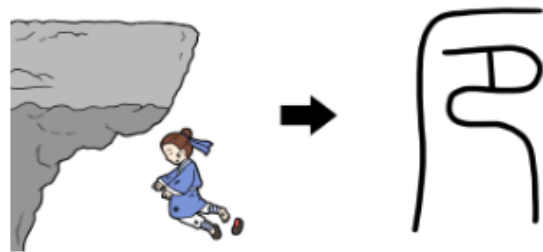
涯

소전

涯

해서

회의문자 ①



厄

액 액

厄자는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厄자는 厂(기슭 엄)자와 卮(병부 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卮자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厄자는 이렇게 무릎을 꿇은 사람을 그린 卮자에 厂자가 결합한 것으로 벼랑 아래로 사람이 굴러떨어져 있다는 뜻을 표현했다. 재앙이 닥친 것이다. 그래서 厄자는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의미에서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厄자 위쪽으로 다시 사람이 하나 더해지면 '위태하다'라는 뜻의 危(위태할 위)자가 된다.

厄

소전

厄

해서